

[14차시] 순우리말 살려 쓰기



1. 비에 관한 순우리말

농사를 짓던 옛날에는 ‘비’만큼 중요한 게 없었을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비에 관련된 순우리말 중에는 농사짓는 일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 단어가 몇몇 눈에 띄니다. 그럼 비에 관한 예쁜 순우리말 표현을 알아볼까요?

가랑비 - 보슬비와 이슬비.

가루비 - 가루처럼 포슬포슬 내리는 비.

누리비 - 우박.

단비 - 꼭 필요할 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

달구비 - 달구(땅을 다지는 데 쓰이는 쇠덩이나 둥근 나무토막)로 짓누르듯 거세게 내리는 비.

도둑비 - 예기치 않게 밤에 몰래 살짝 내린 비.

목비 - 모낼 무렵에 한목 오는 비.

못비 - 모를 다 낼만큼 흡족하게 오는 비.

보슬비 - 알갱이가 보슬보슬 끊어지며 내리는 비.

부슬비 - 보슬비보다 조금 굵게 내리는 비.

소나기 - 갑자기 세차게 내리다가 곧 그치는 비.

안개비 - 안개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 비.

여우비 - 맑은 날에 잠깐 뿌리는 비. 지나가는 비

오란비 - 장마의 옛말.

이슬비 -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작달비 - 굵고 세차게 퍼붓는 비.

2. 별에 관한 순우리말

별에 관한 아름다운 우리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 중 ‘별똥별’은 ‘유성’보다 널리 쓰이지만 ‘꼬리별’ ‘불박이별’ 등은 ‘혜성’ ‘항성’과 같은 한자식 표현이 더 많이 쓰이곤 합니다. 그 뜻을 음미하면 할수록 더 아끼자기한 별이름들을 알아봅시다.

[14차시] 순우리말 살려 쓰기



개밥바라기 -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

꼬리별, 살별 - 혜성.

땃별 - 별자리 중에서 '카시오페이아자리'를 달리 이르는 말.

못별 - 많은 별. 중성(衆星).

미리내 - '은하(銀河)' 또는 '은하수'의 방언.

별무리 - 별이 많이 모여 한 덩어리로 빛나는 것.

별똥돌 - 지구에 떨어진 운석.

별똥별 - 유성.

불박이별 - 항성

살차다 - 혜성의 꼬리 빛이 세차다.

셋별 -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금성(金星)'을 이르는 말. 계명성(啓明星). 명성(明星).

여우별 - 궤은날에 잠깐 떴다가 숨는 별.

잔별 - 작은 별. 자잘한 별.

저녁별 - 해가 진 뒤 초저녁에 뜨는 별.

쭈생이별 - '묘성(昴星)'의 다른 이름. 플레이아데스.

짚신할아버지 - 견우별.

한별 - 크고 밝은 별.

※ 심화학습

미리내의 어원은?

하늘 위에 구름 떠 모양으로 길게 분포돼 있는 수많은 천체의 무리를 은하(銀河)라 합니다. 일상적으로 '은하'를 강(江)에 비유해 은하수라 하며, 은하수를 제주 지방에서는 순우리말 표현인 '미리내'라 불렀습니다. '미리내'를 '미리+내'로 나눠 분석해 보면 '미리'는 '용(龍)'을 뜻하는 우리 옛말인 '미르'에서 온 말입니다. '내'는 시내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미리내'라 하면 '용이 사는 시내', 또는 '용의 모습을 한 내'라는 뜻이 됩니다. '미리내'는 은하수가 용처럼 기다란 모습을 하고 있는 데다 수많은 별이 마치 용의 비늘이 반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4차시] 순우리말 살려 쓰기



옛 문헌들을 보면 상상의 동물인 용은 지상에서는 물에서 살면서 물을 다스립니다. 또 옛 사람들은 용이 승천해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용 신앙이 밀바탕이 돼 밤하늘의 은하수가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용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은하수를 일러 하늘로 올라간 ‘용이 사는 시내’라는 뜻으로 ‘미리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자어인 은하수(銀河水)는 은빛으로 빛나는 강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온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는 견우와 직녀가 이 강을 까마귀와 까치들이 몸을 죽 이어 만든 오작교로 건너 1년에 단 한번 음력 7월 7일 칠석날 밤에 만난다는 슬픈 전설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3. 바람에 관한 순우리말

바람에 관한 우리말은 동서남북과 같이 단순히 방향을 나타내는 낱말 외에도 ‘선들바람’ ‘소슬바람’과 같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름이 많답니다. 바람이 불 때 조금씩 다른 바람의 느낌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지 말고, 다양한 바람의 순우리말 표현을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방향에 따른 바람 이름-

동풍 - 샛바람

서풍 - 하늬바람(주로 농촌과 어촌에서 이렇게 부름), 갈바람(주로 뱃사람들이 이렇게 부름)

남풍 - 마파람

북풍 - 뒤편바람, 텐바람

동남풍 - 뒤편마파람

서남풍 - 늦하늬바람

북서풍 - 늦하늬바람

북동풍 - 늦새바람

[14차시] 순우리말 살려 쓰기



-그 밖의 바람 이름-

강쇠바람 - 초가을에 부는 동풍.

갯바람 -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

건들바람 - 초가을에 선들선들 부는 바람으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건들거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골바람 -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남실바람 - 나뭇잎이 흔들릴 정도로 불어오는 바람. 마치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이 물결이 남실되는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돌개바람 - 육지에서 일어난 회오리바람을 이른다.

들바람 - 들에서 불어오는 바람.

산들바람 - 산들산들 부는 바람.

살바람 - 봄철에 부는 봄바람이지만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느낌이 가시지 않은 차가운 바람이 실같이 가느다랗게 분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색바람 - 초가을에 부는 바람.

서늘바람 - 초가을에 부는 서늘한 바람.

서릿바람 - 가을에 서리가 내린 날 아침의 차가운 바람.

선들바람 - 선들선들 부는 바람.

소소리바람 - 이른 봄의 맵고 스산한 바람.

소슬바람 - 으스스하고 쓸쓸하게 부는 바람.

손돌바람 - 음력 시월 스무날께 부는 몹시 차고 센 바람으로 손을 호호 불 정도로 차갑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

술술바람 - 약하게 술술 부는 바람.

실바람 - 이른 봄 술술 가늘게 불어오는 바람.

씩쓸바람 - 태풍을 말하며 모든 것을 싹 쓸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황소바람 -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매우 차가움을 말한다.

[14차시] 순우리말 살려 쓰기



4. 달에 관한 순우리말

달에 관한 순우리말은 별, 바람, 비 등에 관한 순우리말보다 훨씬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직은 한자식 표현이 더 편하고 익숙하게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달에 관한 순우리말 표현이 한자식 표현보다 더 널리 쓰이듯, 많은 사람이 자주 쓰다 보면 순우리말 표현이 한자식 표현보다 더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갈고리달 - 초승달이나 그믐달 따위와 같이 갈고리 모양으로 몹시 이지러진 달.

그믐달 - 음력으로 매월 그믐께 뜨는 달(초승달의 반대).

낮달 - 낮에 보이는 달.

눈썹달 - 눈썹 모양으로 보이는 그믐달이나 초승달.

달님 - 달을 인격화하여 높여 이르는 말.

달무리 -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둘러싼 구름.

달빛 - 월광.

동산달 - 동산 위에 떠오른 달.

보름달 - 음력 보름날에 뜨는 둥근 달.

봄달 - 봄에 뜨는 달

얼레달 - '반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온달 - 음력 보름달.

외쪽달 - 이지러져 한쪽만 남은 달.

으스름달 - 침침하고 흐릿한 빛을 내는 달.

지새는달 - 먼동이 튼 뒤 서쪽 하늘에 보이는 달.

쪽배달 - 반달보다 조금 우묵하게 팬 쪽배 모양의 달.

초승달 - 음력으로 초승에 뜨는 달.

[14차시] 순우리말 살려 쓰기



5. 잠에 관한 순우리말

‘늦잠’ ‘단잠’ 등은 널리 쓰이고 있는 순우리말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비잠’ ‘노루잠’ 등과 같이 자는 모습을 동물에 빗댄 표현이나 ‘멍석잠’과 같이 사물과 잠을 연결 지어 절묘하게 그 뜻을 나타내는 표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잠에 관한 재미있는 순우리말을 배워 봅시다.

갈치잠 - 비좁은 곳에서 갈치처럼 납작하게 모로 세워 자는 잠.

개잠 - 개가 자는 모습처럼 다리와 팔을 오그리고 자는 잠.

결잠 - 눈만 감고 자는 채하는 것을 이르는 말.

꽃잠 - 신랑 신부가 첫날밤에 자는 잠.

나비잠 - 잣난아기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

낮잠 - 낮에 잠깐 자는 잠.

노루잠 - 자주 깨어나는 잠(노루가 적을 경계하면서 자는 모습을 빗댄).

늦잠 - 아침 늦도록 자는 잠.

단잠 - 깊이 달게 자는 잠.

멍석잠 - 너무 피곤해 멍석에 쓰러져 자는 잠.

밤잠 - 밤에 자는 잠.

새벽잠 - 새벽녘에 잠이 드는 것.

새우잠 - 새우처럼 구부려 자는 잠.

선잠 - 잠이 깊이 들지 못하고 충분히 자지 못한 잠.

초저녁잠 - 아주 일찍 초저녁에 드는 잠.

푹잠 -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깊이 들지 않은 잠.

헛잠 - 자는 듯 마는 듯 하여서 잔 것 같지 않은 잠(거짓으로 자는 잠도 헛잠이라 함).



6. 맛에 관한 순우리말

‘달다’ ‘쓰다’ ‘시다’ ‘짜다’ 외에 맛을 표현하는 데 쓰고 있는 표현은 얼마나 되나요? 맛을 표현하는 순우리말 어휘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 단조로운 표현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맛에 관한 다채로운 표현을 배워 말맛을 살려 봅시다.

구들하다 - 변변하지 않은 국이나 찌개 따위의 맛이 제법 구수하여 먹을 만하다.

구수하다 - 맛이나 냄새 따위가 입맛이 당기도록 좋다.

맹맹하다 - 음식 따위가 제 맛이 나지 아니하고 싱겁다.

모름하다 - 생선이 신선한 맛이 적고 조금 타분하다.

밍밍하다 - 음식 따위가 제 맛이 나지 않고 몹시 싱겁다.

바따라지다 - 음식의 국물이 바득하고 맛이 있다.

배틀하다 - 배착지근(비릿하고) 감칠맛이 있다.

비틀하다 - 약간 비릿하면서도 감칠맛이 있다.

삼삼하다 - 음식 맛이 조금 싱거운 듯하면서 맛이 있다.

심심하다 - 음식 맛이 조금 싱겁다.

싱겁다 - 음식의 간이 보통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약하다.

엇구들하다 - 변변찮은 국이나 찌개 따위의 맛이 조금 그럴듯하여 먹을 만하다.

엇구수하다 - 맛이나 냄새가 조금 구수하다.

짐짐하다 - 음식이 아무 맛도 없이 찹찹하기만 하다.

칼칼하다 - 맵거나 텁텁하거나 해서 목을 자극하는 맛이 조금 있다.

타분하다 - 음식의 맛이나 냄새가 신선하지 못하다.

텁지근하다 - 입맛이나 음식 맛이 좀 텁텁하고 개운하지 못하다.